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조성*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마닐라 말라본 시티에 위치하고 있다. 이 대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같이 있다. 시설은 한국처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편함은 느끼지 않았으며 괜찮았다. 좋았다.</p>
수업	<p>수업은 하루에 8시간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간에 'no class'로 2시간씩 쉬는 시간이 있다. 나는 1교시 수업이 없어 첫 수업이 9시에 시작이라서 좋았다. 8시간 수업 중에서 3시간은 맨투맨수업, 2시간은 소그룹 수업으로 6명끼리 수업을 했고 3시간은 대그룹수업으로 12명 수업을 했다.</p> <p>맨투맨수업은 스피킹, 라이팅, 발음수업을 했는데 스피킹은 토픽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이팅 수업은 문법을 배우고 일주일에 쓰는 에세이를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다. 발음은 단어를 하나하나 발음하면서 애매모호하게 발음했던 것들을 바로잡아 교정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스피킹 수업이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문법도 배우고 발음도 배우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었다.</p> <p>소그룹과 대그룹은 다른 학교와 섞여서 수업을 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수업을 듣는 것이라 다른 학교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반 소그룹은 주로 프리토픽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수업을 했다.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분들이셔서 다른 게임을 하지 않아도 재미있었다. 소그룹 수업에서 필리핀 학교 학생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 때 밖에 나가서 필리핀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재미있는 추억이었다.</p> <p>대그룹은 멀티미디어, 리스닝, 토익스피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멀티미디어는 광고에 대해 배우는 시간으로 영어에 부담감도 없었고 그냥 재미있게 배우면서 광고를 만드는 수업이었다. 리스닝은 영어 듣기를 하는데 토익 영어듣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빈칸 채우고 요약하고 이런 거? 내가 듣기엔 제일 딱딱한 수업이었다. 토익 스피킹은 실제 토익 스피킹에 대해 배우고 배운 것을 시험을 치는 수업이었다. 토익 스피킹에 대해 몰랐던 터라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기분이었다.</p>

	<p>과제는 선생님별로 다른데 많지 않았다. 공식적인 과제는 일주일에 에세이 2편을 쓰는 것과 테스트가 있다. 매주 월요일은 보카테스트, 금요일은 라이팅, 스피킹, 리스닝 테스트가 있다. 부담을 가질 만큼 엄청난 테스트는 아니다.</p>
Activity	<p>학교에서 주말마다 액티비티가 예정되어있다. 민도르섬, 따가이따이, 팍상한 폭포 중에서 나는 민도르섬과 따가이따이에 다녀왔다. 민도르 섬은 2박 3일 동안 지냈다. 가는데 버스타고 배타고 가는 것이 힘들 뿐 그 곳에서의 3일은 재미있었다. 바다에서 물놀이도 하고 밥도 맛있었다. 밤에 하는 쇼도 보고 우리가 갔을 때는 새해여서 폭죽도 보고 기념품 사기에도 좋았다. 사진 찍기에도 정말 이뻐다.</p> <p>따가이따이는 이동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걱정했었는데 이동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그러나 우리가 간 날이 날씨가 좋지 않았다. 해가 짙짙했다가 비가 왔다가 오락가락했다. 따가이따이는 말을 타고 화산섬을 올라가는 것인데 처음에는 말이 무서웠다. 그리고 말과 마부들이 힘들어보여서 조금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말도 타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여름이지만 우리나라 여름처럼 엄청 습하고 더운 그런 날씨는 아니었다. 그리고 항상 에어컨을 빵빵 틀기 때문에 반팔보다는 긴팔이 나는 더 좋았다. 엄청 여름 옷보다는 긴 블라우스같은 옷을 더 선호했다. 비도 2번 3번 정도 별로 많이 오지 않아서 생활하기에 더 좋았던 것 같다.</p>
안전	<p>항상 무섭다는 소리에 많이 걱정했는데 그렇게 걱정할 만큼 무섭지 않았다. 그리고 가드들도 많아서 무서움을 많이 못 느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p> <p>새로운 기숙사에 들어가서 2인 1실로 사용을 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 일단 좋았다. 생각보다 좁은 구조에 처음에는 불만, 불편이었지만 그래도 적응하니 사용할만했다. 그리고 벌레도 나오지 않아서 좋았다. 청소도 해줘서 편했다. 밥을 먹을 때 구호스텔로 가야하는 것이 귀찮고, 10시 통금 빼고는 기숙사에 만족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기타()</p> <p>점심은 주로 학교식당에서 먹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밖에서 사먹었다. 학교식당은 한식이 나오는데 먹을 만했다. 하지만 먹고 나면 군것질을 하게 되었다.</p>
교통	<p>주로 우버, 그랩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마닐라 시내로 나갔다.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데 가기 전에 가격이 미리 측정되는 것이라 편리하고 택시도 깨끗하고 아저씨들도 좋았다. 가까운 곳을 갈 때에는 지프나 트라이</p>

씨클을 이용했다. 트라이씨클은 재미있었다. 금요일이나 주말에는 트래픽으로 이동시간이 다른 날보다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생각해야하지만 시간대만 잘 피하면 트래픽에 걸리지 않는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필리핀 생활비	500,000	420달러정도
합계	1,199,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혹시 모르니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름이라고 너무 여름 옷으로만 준비해 가지 말고 긴 옷도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필리핀이 여름이라고 더울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학교 안에서 항상 에어컨을 켜놓기 때문에 춥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래서 겹옷이나 긴팔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1달 동안 필리핀 생활은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다. 1달이 이렇게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필리핀에 가기 전에 '가서 영어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1달 동안 공부를 해서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은 많이 늘은 것 같아서 좋다. 그리고 그 곳에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주변에 놀러 갔는데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싸서 이것저것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필리핀에서 올 때에는 한주 더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생각보다 필리핀 생활이 재미있고 좋았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가고 싶다.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면 영어공부를 그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필리핀에서 다양한 영어공부를 한만큼 이제 혼자서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영어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이 생겼을 때 더 영어공부를 해야겠다. 4주 동안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영어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민도르섬



마닐라투어 - 대그룹 단체사진



주말 자유여행 - 보니파시오



소그룹 수업 - 인터뷰하기



따가이따이



졸업식